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135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026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2008년 봄 | 21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박물관사람들



松下處士圖
李在寬(1783~1837) 국립중앙박물관

松是癭骨 石是頑骨 人是傲骨 然後方帶
得抱膝長嘯 眼冷一世之意 小塘 其眞畫神者乎
使我作此 松老石怪人詭而已 此寫形者也

소나무는 여윈 꼳꼳함이고, 바위는 완고한 꼳꼳함이며, 노인은 오만한 꼳꼳함이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무릎을 안고 긴 휘파람 불면서, 한 세상을 차갑게 바라볼 수 있다는 뜻이다. 小塘은 진정 畫神이구나! 만약 나에게 이것을 그리라고 한다면, 소나무는 늙게, 바위는 괴상하게, 노인은 기괴하게 그려낼 수 있을 뿐이니, 이는 겉모습만 그리는 것이다.

* 동양화에서 진정한 그림 솜씨는 사물의 겉모습[形]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그리는 데 있다. "따라서 정신을 그리는 일"[寫神] 또는 "정신을 전하는 일"[傳神]이야말로 최고의 화법으로 여겨졌다.



국립중앙박물관회

기획 | 소나무

- 04 마음 속에 자라는 소나무
- 08 「술숲에서」 이 시 영
- 09 술·나무·향기

전시실산책 I

- 12 누군들 꽃이 되고 싶지 않으랴

옛사람 옛보기

- 16 태종의 결정

장인을 찾아서

- 18 마음이 부자인 사람 - 목조각장 박찬수
- 20 목아박물관

전시실산책 II

- 21 延年有餘, 해마다 여유있고 즐겁게 살기를

회원마당

- 24 작은 그림에 차고 넘치는 큰 정성

특설강좌 설문조사

- 26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전시소개

- 28 베트남, 삶과 문화
- 30 페르시아와의 첫 만남

박물관소식

- 32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 33 천신일 회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획 | 소나무



마음 속에 자라는 소나무

우리 정신의 표상이 될 만한 나무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를까? 주저없이 소나무를 들 것이다. 기백이 넘치면서도 정중하고, 아무 치장없이 사철 그대로인데 멋스럽다. 품격이 느껴지는 나무이다. 그래서인지 한 그루 소나무를 품으면 우리 정신은 경건해진다. 이런 심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선인들은 소나무의 기둥을 꿈틀대는 龍에 비유했다. 氣運生動의 화신인 썸이다. 깎은 듯 일직선이 아니라 자연스런 곡선이어서 動的 에너지가 더 느껴진다. 우리 마음 속의 소나무는 기둥이 붉은 빛이다. 황토 들녘의 건강함이 숨어있다. 푸른 잎은 사철 색을 바꾸지 않는다. 갖은 풍상에도 시들지 않아 보는 이의 정신을 곧추세우게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은 말갈기 같이 뺨뺨하다. 몸은 청년의 모습이나 뿌리는 오래 같고 닦은 장인의 손처럼 노련하다. 척박한 곳에 내린 뿌리일수록 아귀의 힘은 굳세어 보인다. 아무 굳더더기 없는 우리 소나무는 진중하다.

이런 걸모습 뿐이라면 아취까지 논하기는 어려우리라. 소나무 아래를 거닐어 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다. 松風이 분다. 선인들은 이 운치있는 바람소리를 松韻이라 했고, 때로 파도소리처럼 들린다면 松濤라고 표현했다. 거기다 그윽한 향기까지 더해지면 절로 정신이 맑아질 수밖에. 솔잎차·송편·송순주·송엽주 등, 농담은 달라도 모두 이 향기를 음미하는 것이다. 솔 그림자는 또 얼마나 부드러운지. 四溟堂은 「靑松辭」에서 ‘소나무에 달이 오르면 잎 사이로 금모래를 체질한다’고 했다. 소나무 아래는 잡초가 자라지 않고 떨어진 솔잎마저 깔끔해서, 솔 주변은 항상 정갈하다. 솔씨를 松子라고 불렀단다. 우리 선인은 이 품위 있는 식물을 그냥 한그루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 것이다.

이런 기상을 흠모한 사람은 바로 선비들이다. 소나무는 권력이나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곧은 충절의 지표가 되었다. 그래서 서원 주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고 문학이나 회화에

서 선비의 지조와 절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소재로 썼다. 「세한도」 속의 소나무는 유교적 윤리규범을 나타낸 대표적 작품이다. 화면 가득 눈 덮인 두 그루의 소나무와 얼음처럼 차가운 바위를 그린 능호관 이인상의 「雪松圖」도 유명하다. 추사는 거친듯 담담한 필치로 소나무를 그렸으나 능호관의 소나무에는 추상같은 기개가 서려 있다. 화면 앞으로 곧게 뻗은 가지는 무성한 잎을 달고 있으나 교차하는 뒤편의 소나무는 스러질 듯한 노송의 모습이다. 두 소나무의 대비에서 사뭇 비장감이 감돌기도 한다. 눈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소나무는 그림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리라. 높은 학문에도 불구하고 뜻을 펼 수 없었던 이인상은 서출로 태어난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 설송으로 표현했다.

문학작품 속의 소나무는 獨也靑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많았다. 지은이가 바라는 지조 높은 선비와 동의어였다. 落落長松은 오래 될수록 유용해지는 생태를 지칭한 것으로 인격의 완성단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쓴다. 정도전의 시조 「故意」에서는 조금 노골적이다. 기다리다 지친 그는 굶은 소나무 같은 자신을 왜 알아주지 않는지 한탄하고 있다. ‘해 묵은 술이 한길 가에 우뚝 서니/ 나무꾼의 괴롭힘을 어이 면하리/ 아직도 굳고 곧은 바탕을 지녀/ 훗날 타는 불빛을 도와주네 / 어찌면 병 없이 조용히 있어 / 낙락장신 하늘 높이 솟아올라/ 때가 와서 큰 집을 지을 적이면/ 우람한 저 대들보에 충당할 건가 / 뉘라서 이 뜻을 미리 알아 / 최고봉에 옮겨 심어 줄 건가’

신선은 왜 자주 소나무와 함께 등장하는 것일까? 소나무의 상록성이 불로장생의 도교사상과 합치하기 때문이다. 조세걸의 「神仙圖」에는 하얀 도포를 걸친 노인 셋이 소나무 가



설송도 李麟祥(1710~1760) 국립중앙박물관

지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다. 신선이 걸터 앉은 자리도, 옷자락도, 배경의 폭포도 구불구불한 곡선이다. 도무지 긴장감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구름처럼 가벼워 보이는 술잎 사이로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있다. 신선이 건네는 붉은 잔 속의 감로수를 마시고 나도 슬



신선도 卍世傑(1636~1705)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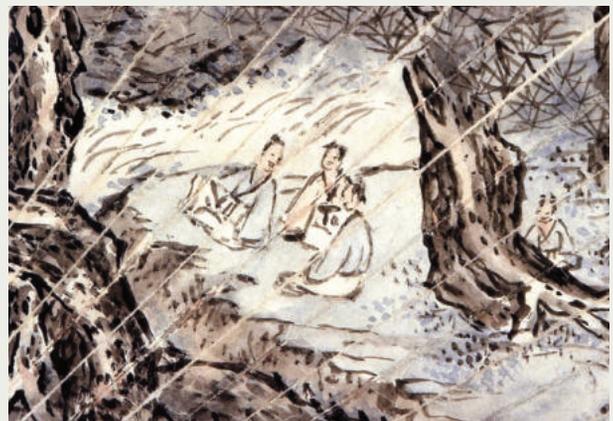
그머니 仙界에 입문하고 싶어진다. 먹으면 천년을 산다는 송실이나 복령 등도 食醫同源사상과 일치했다. 「十長生圖」와 「日月五峰圖」의 소나무도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풍류를 즐길 때도 松友와 함께 하기를 좋아했다. 소나무는 바로 탈속의 상징이었다. 자질구레한 세상사를 잊고 싶을 때 청빈한 선비 같은 소나무 친구가 제격이었으리라. 유춘이

인문이 「松溪閑談圖」에 그런 심정을 담았다. 울창한 송림 속 계곡가에 선인들이 모여 있다. 무슨 말을 나누는 것일까? 소나무 가지에는 느긋한 여유가 흐르고 있다. 한여름 더위 짙은 활기 넘치는 폭포가 날려 주었으리라. 그러나 솔숲이 아니라면 어찌 영혼까지 청량해 질 수 있겠는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그림 속 선인들이 부럽기만 하다.

생활 속에서도 소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상징으로 애용했다. 俗氣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로 아이가 태어나면 텃줄에 소나무 가지를 걸었고, 백년해로를 기원하며 혼례청에 올렸다. 여인들은 雌雄同株인 땡기에 소나무 가지를 수놓아 부부애가 돈독해지기를 바랐다. 빗치개에 소나무 문양을 새긴 뜻도 여인의 고아한 정절을 표현한 것이리라. 자신의 지조를 장송으로 은유한 조선시대 기녀 솔이의 단가가 전해진다. 「솔이 솔이라 하니 무슨 솔로 여기느냐?/ 천길 절벽에 낙락장송 같은 나로다/ 길아래 초동이 낫인들 걸어볼 수 있으랴」

한 번 생각해 보라. 지금도 마음이 아프거나 슬플 때 조용히 기대고 싶은 나무 한 그루를 고르라면, 단연 소나무일 것이다. 한밤중에 나직이 불러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무이다.



송계한담 부분도



송계한담도 李寅文(1745~1821) 국립중앙박물관

학교 뒷산을 산책하다. 반성하는 자세로.
 눈발 뒤집어쓴 소나무, 그 아래에선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내려왔다. 내가 내 품격을 위해선
 너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나를 이렇게 휘어지게 할지라도.
 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이 地表 위에서 가장 기품 있는
 建木; 소나무, 터리에 눈을 털며
 잠시 진저리 친다.

황지우 「소나무에 대한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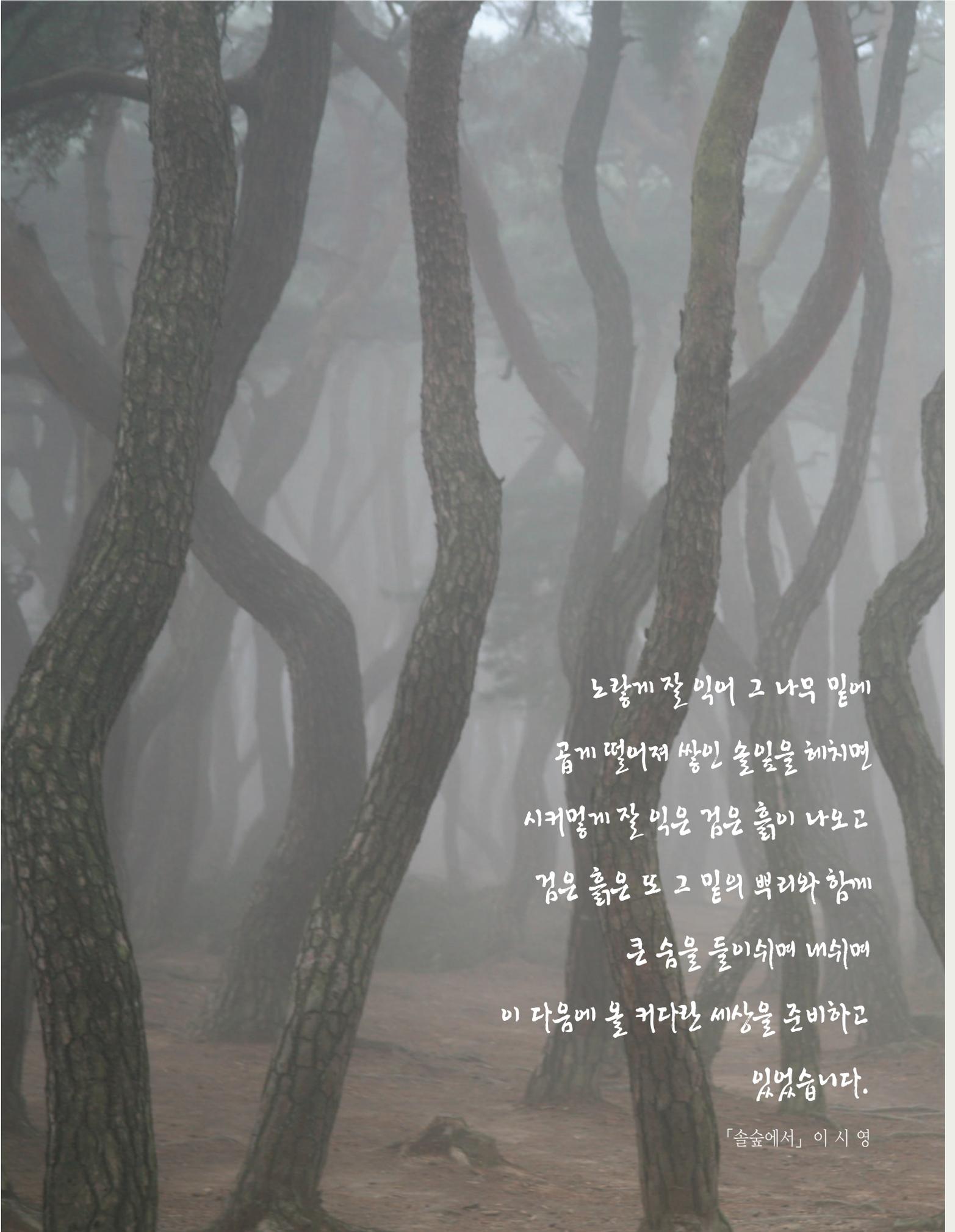
윤선도의 五友歌 속 소나무가 아직 유구하다. 그의 말없는 충고에 조용히 귀 기울이면, 자신을 반성하고 남을 용서하게 된다. 실의에 빠졌을 때 힘을 주는 것도 소나무이다. 비장한 마음으로 '거친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 살겠다

고 다짐하기도 하고, 때로 목청이 터져라 '솔아 솔아 푸른 솔아'를 외치며 의지를 다진다.

김훈은 안면도 솔숲을 보며 '자연이 인간을 위로하고 시간을 쇄신시켜 주는 것은 삶의 신비다. 사람의 언어가 숲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숲이 사람을 새롭게 해 줄 수 있는 까닭은 숲에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숲이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겨레의 정신은 이렇듯 소나무에 깃들여 산다. 河



송계한담 부분도



노랗게 잘 익어 그 나무 밑에
곱게 떨어져 쌓인 솔잎을 헤치면
시커멓게 잘 익은 검은 흙이 나오고
검은 흙은 또 그 밑의 뿌리와 함께
큰 숨을 들이쉬며 내쉬며
이 다음에 볼 커다란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숲에서」 이 시 영

솔 · 나무 · 향기

강남서 나온 제비 솔씨 하나 물어다가
 소평 대평 던졌더니
 그 솔이 점점 자라
 소부동 되었구나 대부동 되었구나
 금도끼로 배어 넘겨 옥도끼로 다듬어서
 삼간 초당집 지어
 그 집 짓고 삼 년 만에 아들 낳으니 효자로다
 딸을 낳으니 열녀로다 (중략)

위의 「성주풀이」는 성주신의 근본과 솔씨의 기원이 경상도 안동의 제비원이며, 그곳에서 소나무가 전국으로 퍼졌다는 신화를 노래하고 있다. 집안의 안전과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주가 잡는 성죽대는 소나무 가지인데, 이것은 집을 지은 나무의 상징이자 성주의 상징이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생을 다할 때까지 소나무와 더불어 살아 가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나라 소나무는 약 6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살기 시작했다.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시작한 시기는 신라시대이며, 고려말에는 온돌이 보편화되고 국정이 문란해지면서 사유지의 소나무가 많이 베어졌다. 조선왕조는 개국과 더불어 강력한 산림 보호정책을 실시한다. 국

용재인 소나무를 원활하게 충당하고자 무분별한 소나무 벌채를 금지한 松禁제도를 만들어 엄격하게 지키게 했다. 그 결과 1930년대에는 전국 산림면적의 60% 이상이 소나무 숲이 되었지만, 일제 강점말기에 땀감과 송진을 채취하면서 황폐해졌다.

소나무는 지역에 따라 형태상으로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꺾질이 붉고 가지 끝에 붙은 눈도 붉다 하여 赤松, 내륙에서 주로 자란다 하여 陸松, 온난한 해안과 도서 지방에서 자라는 것으로 곰솔보다 부드러워 女松이라고 부른다. 또 강원도 영동지방, 경상북도 청송군에 걸쳐 동해안 일대에서 곧게 자라는 것을 剛松, 金剛松이라 한다. 아래부터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조경수로 흔히 이용되는 盤松, 능수버들처럼 자라는 ‘치진 소나무’가 있다.





경주 안압지 출토 배 (고경희 제공)

우리 가까이에 숲을 이뤄 온 소나무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 먼저 목재의 나뭇결이 곧고 강도가 커서 궁궐이나 건축물에 크게 이용되었다. 특히 궁궐 건축에는 오로지 소나무만 사용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 뒤틀림이 적고 송진이 있어 비나 습기에 잘 견디기 때문이다. 경복궁 복원(1990~1999)에 11톤 트럭 500대의 엄청난 소나무 원목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건조와 제재, 깎고 다듬는 治木을 거쳐 궁궐 건축재로 태어나게 된다.

또한 선조들은 소나무를 船材로 사용했는데 그 흔적은 안압지에서 출토된 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며 세 개의 소나무를 잇대어 만들었다. 군산 근해의 섬 십이동파에서 발견한 고려청자 수송선 역시 소나무로 만든 고려시대 배였다. 목재를 쉽게 굽힐 수 없어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할 선박에는 썩 좋은 조건이 아니었는데도 조선재로 이용된 까닭은 무엇이였을까? 인근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물 속에서도 잘 썩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밑판이 평평하여 수심이 깊지 않은 강이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남서

해안에서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한 구조이기도 했다.

우리 선인들은 방대한 양의 목재를 어디에서 충당했을까 궁금해진다. 물론 전국 곳곳에서 조달해 왔지만, 국용재 소나무의 주요 생산기지로는 안면도를 활용했다고 한다. 나무를 베고 물길을 이용해 운반하기가 용이하며, 무엇보다도 질 좋은 소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이다. 김정호의 『대동지지』나, 문물제도를 정리한 『증보문헌비고』에 ‘고려조부터 안면곳에



강원도 반담이 조선 19세기 국립춘천박물관

서 재목을 길러 궁실 건축용과 선박 제조용 목재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창덕궁 인정전과 1796년 완공한 수원 화성은 안면도 소나무로 축조한 것이다.

조선시대 松政은 국가에서 필요한 소나무재를 조달하고자 연해지역을 대상으로 의송지를 지정하여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었다. 소나무 보호에 각별했던 왕은 세종이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소나무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함부로 불을 내지 못하게 했으며, 바닷가 각 고을에서 몇 그루나 심고 어떻게 가꾸는지 해마다 보고하게 하였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률에 따라 논죄한다고 밝혔다.

송금정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벌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무거워진다. 조선재를 키우는 솔숲에 불을 지르면 참형, 금산에서 목재를 벌채하면 효시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기보다 처벌식 관리에 치중한 소극적 정책은 아니었는지. 숙종 때에 도입된 封山제도는 기능에 따라 산림을 세분하여 국가에 필요한 특수용도(조선재, 관곽재,

신주용 목재)의 목재를 조달하고자 했다. 이렇게 지정된 봉산에는 봉표를 자연석에 새겨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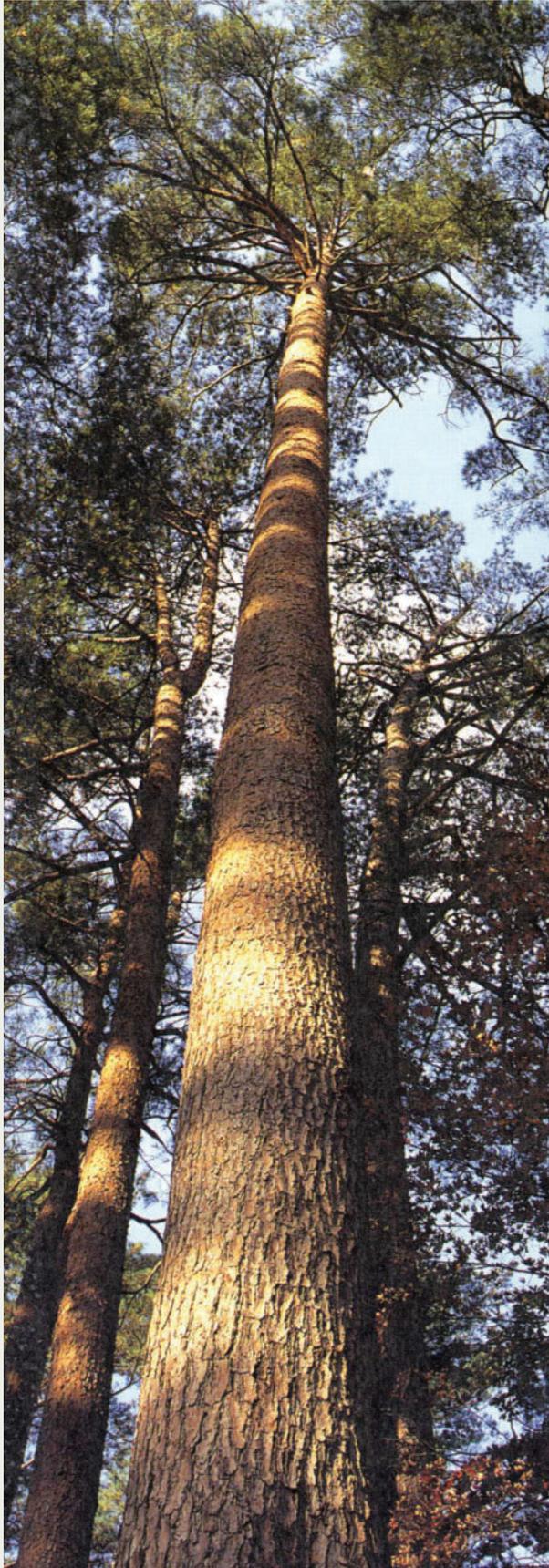
백자를 굽는 최상의 연료는 숯이나 재가 남지 않고 충분히 열량을 낼 수 있는 소나무였다. 불티가 남지 않아 백자 표면에 입힌 유약을 매끄럽게 해준다. 철분이 많은 참나무류는 불티가 많이 생겨서 예열을 할 때만 사용한다. 『승정원일기』에는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하던 광주분원에 6~7개소의 分院柴場折受處를 두었고, 10년에 한번꼴로 장소를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도자기 생산 때문에 숲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천일염 이전에는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 만든 煮鹽을 썼다고 한다. 인조때 간행된 『비변사등록』에 '서산과 태안의 소금에서 걷는 세금으로 나라의 경비를 충당한다'는 기록으로 태안지방에서 자염 생산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소금가마의 땀감으로 소나무가 쓰인 것은 조달이 쉬웠던 지리적 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변 생활용품 역시 소나무 목재가 대부분이었다. 음식이나 그릇을 보관하는 찬장이나 찬탁, 곡식을 보관하는 뒤주는 무게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습기나 음식물로 인한 벌레의 해를 입지 않도록 소나무로 만들었다. 지게나 쟁기의 농기구재로, 관재나 상여 등의 장례도구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였다. 온돌의 난방용으로 소나무 장작을 최고로 생각하였다. 솔잎은 취사할 때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긴 겨울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으면, 어느덧 사랑방에 온기와



삼층찬탁 조선 19세기 국립진주박물관



미인송

함께 술향이 스몄으리라. 소박한 書案 앞의 선비는 변치 않는 소나무의 기개를 읊고 있지 않았을까?

소나무 속껍질은 예로부터 식량을 대신할 구황식물로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봄철 소나무의 수액이 활발할 때 생식할 수 있으며 말린 후 곱게 찢어 송기떡을 해 먹었다. 송화가 피어 흩날리기 전, 수꽃망울을 따서 말린 후 꽃가루를 털어낸다. 이것이 송화가루이며 송화다식, 송화밀수 등 고급 민속식품으로 이용된다.

경상북도 예천군에는 세금을 내는 ‘석송령’이 있다. 이 마을에 살던 이수목노인이 자신의 토지를 소나무 앞으로 기증하고 세상을 뜨자, 주민들이 그의 뜻을 기려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을 소유한 나무가 된 것이다.

또한 사람처럼 결혼식을 올린 소나무가 있어 흥미를 자아낸다. 신랑은 속리산 정이품송이며 신부는 강원도 삼척 준경릉의 곧고 어여쁜 미인송이다. 방합례는 미리 채취한 정이품송의 꽃가루를 붓 끝에 찍어 한국 제일의 미인 소나무 암꽃 머리 위에 꽃가루를 문혀 봉하게 된다. 혈통보존을 위함이라 한다.

이 땅에서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온 소나무. 우리 정서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윽한 향을 발산한다. 한때 산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소나무숲은 수종갱신, 산불, 산성비나 소나무재선충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송례문이 불길에 사라진 것처럼 어느 순간 볼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선조들이 지키고 가꿔 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가 아닐까! 🐿 정



누군들 꽃이 되고 싶지 않으랴

진수옥 | 회원

봄이다. 여기저기서 꽃망을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곧 온 천지가 꽃으로 덮일 터이다. 한 송이 꽃의 의미는 각별하다. 그래서 꽃은 기쁜 날도 슬픈 날도 함께 한다.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보다 더 맞춤형 물건은 없을 것이다. 꽃을 바친다는 것은 곧 제일 좋은 것을 바친다는 뜻이니 경배의 대상인 신에게도 꽃은 최상의 예물이다. 꽃을 앞세우면 모든 소통이 쉬워진다. 그래서 도자기나 공예품이나 무엇이든 아름답게 꾸미려면 우선 꽃을 닮게 만들었다. 꽃이 들어가서 미워지는 건 없다. 모란, 연꽃, 국화, 매화……. 그동안 도자기 위에도 수많은 꽃들이 피었다.

그런데 꽃만 있으면 재미가 조금 덜하다. 꽃 주위를 허전하지 않게 채워주는 조연이 필요했다. 흔히 당초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넝쿨무늬, 풀 무늬 들이다. 넝쿨무늬는 꽃 가장자리나 향아리 아랫단처럼 자투리나 좁은 부분을 장식하는데 쓰였다. 그런데 이 청자(잎무늬 매병)는 아니다. 꽃이 아니라 잎이 주인공이 되었다. 무슨 잎인지 이름은 없다. 그냥 이파리 세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너울거린다. 꽃도 없이 잎만 가득하게 그린 대담한 무늬는 정교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던 고려청자의 전통을 단번에 바꾸었다. 향아리 선은 매병의 긴장을 놓지 않았지만 무늬에선 종래의 계산된 치밀함이 없어졌다. 흑색에 가까운 몸체와 흰색의 무늬가 색의 대비만큼이나 선명하다. 잎들은 붓자국까지 시원하게 드러냈다. 늘 꽃이 들어가던 가운데 자리에 턱 버티고 있는 이파리 석장, 꽃이 없어도 허전하지 않다. 오히려 단순하고 품위 있다. 머리로 이리 재고 저리 재서 꼭 맞게 그린 게 아니라 가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듯 그렇게 쉬운 무늬다. 노심초사한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다. 그래서 편안하고 상쾌하다.



청자 철재퇴화 잎무늬 매병 보물340호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넝쿨만 잎만 버젓이 그린 건 아니다. 잎새에 스치는 바람인들 놓쳤을까. 백자 향아리를 보자. 넝쿨무늬 향아리는 단단하고 친밀해 보인다. 이처럼 다부진 향아리를 만들려면 들인 공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림을 그리면서는 물감의 농담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다. 붓에 적당히 물감을 묻혀 그저 몇 번 그었다. 그랬더니 넝쿨의 잎들이 팔랑거렸다. 바람개비의 날개가 되었다. 향아리에는 살랑거리는 바람의 자취가 남았다. 온 정성을 다해 만든 백자 표면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이 천진한 무늬로 마무리하다니. 격식의 담을 훌쩍 뛰어 넘는 자유로

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허허로운 아름다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향아리를 만들고 쓸 줄 알던 선인들의 미감이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 있을까.

지난 겨울 무용공연에서 본 춤을 잊을 수 없다. 농부가 직업이요 틈틈이 고성 오광대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운석의 덧배기 춤이었다. 덧배기 춤이란 오광대놀이의 춤사위를 간추린 것이라고 했다. 성큼 무대에 등장한 그는 반백의 머리에 백자처럼 우유 빛이 감도는 흰색의 바지저고리 차림이었다. 그뿐이었다. 손에는 소고 같은 간단한 악기도 없었다. 무용을 하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빈 손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단다. 손가락 하나에까지 느낌과 표정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춤을 시작하자 손만 빈 손이 아니었다. 몸도 빈 몸인 것 같았다. 힘들이지 않고 추는 듯 했다. 화려한 의상에 딱 짜인 춤사위를 갖춘 춤에선 느끼지 못했던 담박한 시원함이다. 좁은 방 안에서 드넓은 별판으로 나온 듯,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부는 듯 했다. 아마도 농부들이 놀이로 추던 전통 때문인지 일과 놀이가 한데 어울려 버무려진 순박한 몸짓이었다. 여운은 오래 남았다. 보는 이도 자연스럽게 멋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좀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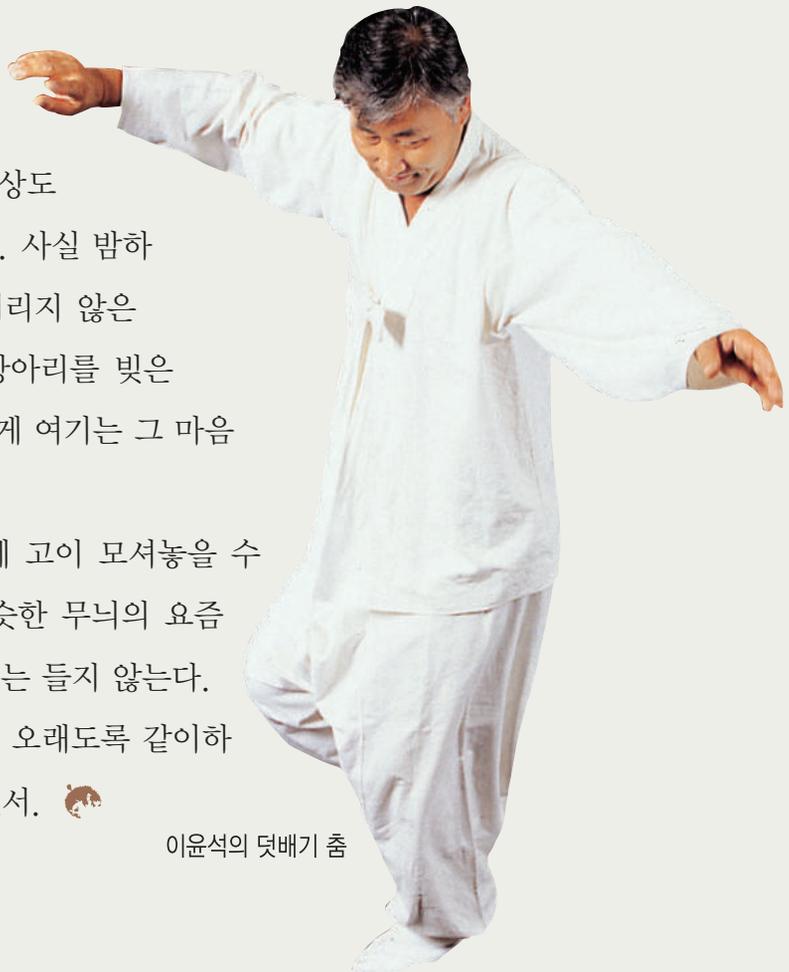
백자철화 넝쿨무늬 향아리
조선 1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았다. 사실 전시나 공연을 보면 곱고 아름답지만 선뜻 잡을 수 없게 까탈스러워 보이는 손처럼, 머리로는 감탄을 해도 마음으로는 감동이 안 오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그랬다.

대단할 것 없는 풀과 넝쿨로 장식한 향아리처럼 그의 춤 또한 일이라는 나날의 몸짓에서 얻은 것이다. 귀한 도자기를 만들면서 거기에 일상의 무늬를 입힐 줄 알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주위에 널린 흔하디 흔한 풀 한포기도 다 나름대

로 소중하다고 일러주고 있지 않은가. 그저 색다른 것 없는 풀이지만 그들의 손에선 일상도 저처럼 빛나는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밤하늘에 떠있는 찬란한 별들도 알고 보면 흠뻑어리지 않은가. 어찌 보면 향아리만 예술이 아니라 그 향아리를 빚은 흙투성이의 마디 굵은 손과 하찮은 것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모두 다 예술일 터이다.

화려하고 정교한 무늬의 향아리는 진열장에 고이 모셔놓을 수 밖에 없다. 가끔 바라보며 감탄을 할 뿐, 비슷한 무늬의 요즘 향아리라도 구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들지 않는다. 대신 곁에는 쉽고 편안한 이런 향아리를 두고 오래도록 같이하고 싶다. 향아리의 이파리에 손때도 좀 묻히면서. 🍵



이윤석의 덧배기 춤

태종의 결정

壬午 廢世子禕 放于廣州 以忠寧大君<諱>爲王世子……乃傳旨曰 予欲以禕之子代之 諸卿皆曰不可 宜擇賢以聞 廷顯以下群臣又啓曰 知子知臣 莫如君父 上曰 古人有言曰 國有長君 社稷之福 孝寧大君 姿質微弱 又性直甚 無開坐 聞如言 但微笑而已 予與中宮 見孝寧常笑之 忠寧大君 天性聰敏 頗好學 當盛寒極熱 終夜讀書 予恐其致疾 常禁夜讀……忠寧大君<諱> 可任大位 以忠寧定爲世子

임오일(3일) 세자를 폐하여 廣州에 추방하고 충녕대군<이름을 숨김>을 왕세자로 삼았다. ……이에 傳旨하기를, “나는 제의 아들로 대신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대신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니, 마땅히 어진 사람을 골라서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현 이하 여러 신하들이 또 아뢰기를 “아들과 신하를 아는 것은 아버지와 임금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에 훌륭한 임금이 있으면 社稷의 복이 된다’고 하였다. 효령대군은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심히 곧아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없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몹시 추운 때나 더운 때를 당하더라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으므로, 나는 그가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항상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다. …… 충녕대군<이름을 숨김>이 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으로 세자를 정하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1418, 戊戌) 6월 3일(壬午)

태종 18년(1418) 6월 3일 태종은 14년동안 왕세자로 있었던 양녕대군을 폐위시키고,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삼는 조치를 취하였다. 태조 7년(1398) 왕자의 난을 일으켜, 당시 세자였던 아우 방석을 죽인 이후 꼭 20년 만에 다시 왕위의 정통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태종은 누구보다도 적장자가 왕위에 오르길 원하였다. 방석을 몰아낸 명분이 바로 적장자 우선의 왕위계승이었고, 5남인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명분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종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적장자 양녕대군이 아닌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양녕이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각종 비행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양녕이 글공부를 게을리하고, 궁궐에 건달패나 기생들을 끌어들이는 등 사냥과 놀이를 지나치게 좋아했으며, 중신의 첩을 강제로 취하여 임신하게 하였다는 등 비행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폐위의 명분이었을 뿐, 결정적인 원인은 태종의 결심 때문이었다. 태종은 이전까지 집착하였던 적장자 계승의 원칙보다는 자신의 기대가 컸던 충녕이 왕의 재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설사 양녕을 폐위한다 하더라도 충녕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그리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태종 스스로 “양녕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나이가 다섯 살이고, 둘째는 세 살이다. 나는 양녕의 아들로써 대신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 왕위가 양녕의 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원칙에 합당하기 때문이었다. 양녕과 충녕의 어머니 원경왕후 역시 “형을 폐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禍亂의 근본이 된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태종 역시 그 명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의 본심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충

녕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태종의 마음을 헤아린 영의정 유정현 등 많은 신하들은 적장자 계승의 원칙보다는 ‘어진 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누가 어진 사람인가는 아버지이자 임금인 태종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냐며 태종의 결정을 기다렸다. 대상자는 효령대군과 충녕대군 두 사람뿐이었다. 효령대군은 ‘제대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항상 실없이 웃기만 하는 사람’으로 충녕에 비해 자질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폄하되었다. 반면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병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밤에 글 읽는 것을 금지하였을 정도’로 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연려실기술』에는 태종실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한다. 효령대군 補는 일찍이 부처를 좋아하였는데, 양녕대군이 미친 체하고 방황하니 효령이 그가 폐위될 것을 짐작하고 글공부에 전념하였다. 양녕이 지나다가 발로 차면서 “어리석구나, 네가 충녕이 제왕의 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하니 효령은 그제야 깨닫고 곧 뒷문으로 나가 절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야사인 연려실기술보다는 정사인 태종실록의 기사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충녕대군의 세자책봉과정을 적은 태종실록의 기록 역시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큰 아들을 내치고, 셋째 아들을 세자로 삼으면서, 자식 간에 골육상쟁이 없기를 바라는 태종의 마음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태종은 왕위의 정통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충녕대군 곧 세종대왕이 조선역사에 가장 뛰어난 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결정이었다. 🍷

장인을 찾아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

목조각장 박찬수



“처음 이 길에 들어선 후 무조건 잘 만들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고 훌륭한 작품이 나올까에만 골몰했었지요. 그러다 10년이 지나니까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잘 아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木芽 朴贊守 선생은 한평생을 나무와 씨름한 장인이다. 한 길을 고집스레 걷는 佛者라는 선입관 때문이었을까. 전통을 이어가는 긍지와 대단한 자공심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장인의 작품관은 다소 의외였다.

“나무를 사러 갔을 때 속인다는 것을 안 것도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똑같은 것을 만드는 쟁이에 지나지 않았죠. 30년이 지나니까 창조력이 들어가야 작품이 숨을 쉰다는 것이 보이더군요. 작품이 있어야 할 장소까지 모두 살피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뜨는데 걸린 세월이죠.”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문화예술상 대통령상 수상의 화려한 경력자답지 않게, 담담하게 일생을 이야기 하는 선생 앞에서 내 자신은 한없이 작아졌다.

어느 바다 물결이/다만 당신의 발밑이라도
찰락이겠나이까/또 어느 바람결이/그 가비연
당신의 옷자락을 스치겠나이까/(중략)당신
앞에선 말을 잃습니다/(중략)어느 명공의 숨
씨인고 하는건 통/떠오르지 않습니다.

관세음상 앞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 장인의 손이 닿으면 차가운 돌은 온기가 들고 거친 나무는 새 생명을 얻는다.

“나무를 구하러 전국의 산과 절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유명 사찰의 대웅전 문짝이 화장실에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물이 사라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모으다보니 박물관을 차릴 정도까지 되더군요.”

1970년대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16000여점의 유물로 여주에서 목아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인이 사립 박물관을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숭례문 화재 이후 목조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져 적자에 허덕이는 박물관 살림이 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립 박물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선생은 강조한다. 한 사람이 어렵게 모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국가의 책임이다.

목아는 국립중앙박물관회의 초창기 시절인 1988년에 수료한 12기 회원이다. 기능만을 가진 장인이 되기 싫어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공부 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특설강좌에 들어오기 힘들었고, 같이 공부한 회원들이 문화계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회에서 목조각에 대해 여러 차례 강의를 했다. 특설강좌를 통해 우리 문화를 재인식하고 지금의 목아박물관을 이끌어 가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바쁘게 산 세월이라 회원 간의 꾸준한 모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옛 일을 회고하는 선생의 얼굴에 젊은 날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 미소가 떠오른다.

“문화란 제2의 독립운동처럼 꾸준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역사를 토대로 민족정신을 정립시켜야 하죠. 박물관은 민족의 혼이 들어 있는 곳이므로 民族館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없으면 마음이 불행해집니다.”

이 시대의 것도 천년, 이천년이 지나면 문화재이므로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장인이 필요하다. 진정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훌륭한 장인을 육성하고 꾸준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문가란 기능과 지식,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합니다. 만들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 지식을 쌓고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의 씨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 할 때, 그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를 조각하는 佛母로서의 佛心을 강조했던 지난 세월에서 이제는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한층 승화된 작품세계를 열고 있다.

숨 가쁘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박찬수 장인. 힘들었던 장인의 세월을 돌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는 수많은 세월 조각했던 해탈한 부처가 웃고 있을 것이다.  리



마음이 부자인 사람 박찬수



목야박물관

목야 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 장인 박찬수 선생이 수집한 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1993년 6월 경기도 여주에 개관하였다. 한국전통 불교조각 기법을 계승하여 새롭게 발전시키고, 우수한 전통 공예를 후세에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물관은 3000여평의 대지 위에 전시관과 전통 건축물인 큰말씀집(대장전), 한얼울늘집(개천궁), 야외조각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지상 3층 지하1층으로 이루어진 전시관은 건물의 중앙과 좌우에 둥근 계단을 설치하여 佛, 法, 僧 三寶를 형상화 했다. 3층 목조각실은 박찬수 관장의 역대 작품들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거대한 용 두마리가 지키고 있는 천장은 그 모양이 특이하다. 벽면에는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 20여점과 사천왕 등, 여러 목조각 작품을 볼 수 있다. 2층 불교유물실은 불교 관련 및 일반 역사유물들이 있다. 사찰에서 사용되던 소품과 불상의 복장, 의식법구를 통해 스님들의 생활을 보여준다. 전승공예대전

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법상'을 비롯해 16나한과 동자, 목재의 종류들이 전시되어 있다. 목관에 음각으로 입체감을 살린 불화가 눈길을 끈다. 1층에 위치한 불교회화실은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불화들을 선보인다. 영상회상설 법도의 백의관음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 되어있다. 지하 1층은 민속유물실 및 영상실로 무속 신앙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된다. 또한 프랑스에서 열렸던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의 목야 작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야외 조각 공원에서는 160여점의 유물과 현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시대별 목조 건축물도 볼 수 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문화생들은 이곳에서 학점이 수가 가능하다. 목조각의 계승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목야박물관.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리

延年有餘

해마다 여유있고 즐겁게 살기를

주 경 림 | 박물관 자원봉사자

戊子年, 어김없이 새해가 밝아왔다. 누구나 올 한해도 별 탈 없이 건강하고 복되게 살림 살이가 더 나아지기를 기원한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 분청사기실에서 열렸던 “계룡산 분청사기” 테마전에서도 그런 희망을 엿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연꽃과 물고기가 함께 그려진 ‘분청사기철화 물고기 무늬병’이며 ‘분청사기 철화물고기 무늬접시조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연꽃은 풍요와 다산, 득남, 장수, 명예, 행운 등을 상징하며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 군자의 표상이 된다. 물고기는 재산의 넉넉함, 자손 번창, 입신출세, 부부금슬을 상징한다. 이 둘을 다 가진다면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 아닐까. 연년유여, 즉 해마다 여유있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중국어에서 延과 年은 蓮과 동음이고 魚는 餘와 동음이다.)

‘백자 조각이 붙어있는 분청사기 귀얄무늬 항아리’는 포개어 구운 흔적이 보인다. 작은 항아리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주저앉은 모습을 대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흑갈색 젓꼭지 같은 주둥이도 찌그러들고 반쯤은 뒤집혀 있었다. 몸통의 귀얄무늬가 구겨진 랩처럼 주름져보였다. 그 항아리 어깨 양쪽에 견장처럼 눌러 붙은 백자편이 푸른 듯 흰빛을

발하고 있어 눈부셨다. 귀얄무늬 분청사기와 백자가 서로 몸을 포개어 구워지다니……. 한 몸으로 엉겨 붙은 모습을 상상해보니 그 불길이 500여년 지난 현재의 나에게도 확확 당겨오는 듯 했다.

학봉리 가마에서 나온 것들은 깨지고, 뒤틀리고, 쪽이 떨어져 나가는 등, 온전히 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처음, 사기조각들을 대했을 때는 제 모양 그대로 보전했으면 국보급이나 보물급 유물이 될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깨진 것에 묘한 매력이 있어 전시기간 동안 틈틈이 가서 들



분청사기 철화 물고기 무늬 병



분청사기 철화 넝쿨무늬 대접

여다보곤 했다. 살아가면서 세파에 부딪혀 조금씩 부서져나가고 무수한 상처를 받게 되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위안이 되었다. ‘참 잘도 깨졌구나’ 혼잣말로 여러 번 중얼거리기도 했다. 깨졌다는 것 배후에는 500여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있고 계룡산이라는 공간적, 지역적 특수한 환경이 내장되어 있어 더욱 값져 보였다.

내 마음이 그렇게 조금씩 열리자 그 중얼거림이 마법의 주문이 되었다.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다. 철화분청사기의 무늬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분청사기 철화 물고기무늬접시조각’에서 두 마리의 물고기가 꼬리를 물고 빙빙 돌기 시작했다. 쏘가리처럼

보이는 흑갈색 점박이 물고기들이 병과 장군 조각에서 지느러미를 활짝 펼쳐 날아올랐다. ‘분청사기 철화 연꽃넝쿨 무늬 편병조각’은 넝쿨이 뻗어나 연꽃봉오리가 수줍게 피어나고 ‘분청사기 철화 모란 무늬 장군조각’의 만개했던 모란꽃은 시든 꽃잎을 떨구기도 했다. 전시실은 연못으로 깊어졌다 하늘 바다로 열리기도 했다.

1호부터 7호까지 출토품을 모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백미라고 했다. 조각조각 모아 놓으니 마치 모자이크처럼 가마별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 되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철화 분청사기 명품도 특별전에 초대 손님으로 등장해 眼福을 누릴 수 있었다. 달팽이집을 짓듯 서로 어우러져 뻗어나가는 ‘분청사기



분청사기 철화 물고기 무늬 접시 조각



백자 조각이 붙어 있는 분청사기 귀얄무늬 향아리



분청사기 철화 연꽃넙쿨 무늬 편병조각

철화넙쿨 무늬항아리'에서는 질박하면서도 세련된 미감을 맛 볼 수 있다.

또한, 학봉리 가마에서는 종속문양으로 그려지던 풀무늬가 주문양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단순한 몇 개의 선을 그어 풀의 느낌을 살리며 주인공이 된 것이다. 나는 전시실 끝에 놓인 '분청사기 풀무늬대접' 앞에서 한참씩 쉬었다 오곤 했다. 흑갈색의 선들이 마음 '心'자에서 분출하는 핏방울처럼 생명력 있어 보인다. 선명한 귀얄 자국이 봄을 시샘하며 물러가는 겨울바람 자락 같다. 우수 지나 경칩, 이제 들판에는 꽃샘바람 속에서도 저런 풀들이 마구 솟구치리라. 각박한 세상이지만 옛 조상들의 마음 씀씀이와 숨씨를 본받아 올 한해도 풀 무늬처럼 단아하게, 물고기나 연꽃처럼 풍요롭게 연유여하기를 희망한다. 🍄

계룡산 학봉리 가마에서 나온 분청사기들
참, 잘도 깨졌다

철화물고기무늬접시에서 흑갈색 점박이 쏘가리,
지느러미 날개를 펴서 단면을 훌쩍 날아오른다
연꽃문, 모란문, 당초문 귀얄분청항아리,
넙쿨이 깨진 금을 타고 항아리 밖으로
낭창낭창 뻗어나간다

부서진 금을 넘을 때는 조심해야한다
몸은 다쳐도 꿈 까지 깨지는 일이 없도록,
물고기 입에서 연꽃 줄기가 뻗어나오고
덩굴손이 쏘가리 등을 휘돌아 감싸안기도 한다
순식간에 하늘 바다로 확 트인다

사기파편들이 하늘바다에 닿처럼 꽃혀있다
분장백토가 다 벗겨지도록 몹시 부서져
태토가 거칠하게 드러난 조각도 있다
솟이 벗겨지고 화장까지 다 지워지니
와, 시원하다

깨진 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으니
불구가 온전해 보이는 세상이다.
현재의 시간, 이곳 특별전시실에서
모두 방생이다.

「깨져서 자유로워지는 세상」 주 경 림

회원 마당

작은 그림에 차고 넘치는 큰정성

장 명 숙 | 회원

하늘이 조금씩 높아보이던 8월, 국립중앙 박물관 뜰이 보고 싶어 집을 나섰다. 연보라 빛 쭉부쟁이 꽃들과 이름모를 풀들이 어우러진 오솔길을 걸어 잔물결이 찰랑이는 거울 못을 돌아서 기획전시실 앞에 섰다. 『사경변상도 부처 그리고 마음』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사경변상도는 어떤 그림일까? 어려웠던 시절 자신이 공부할 경전을 손으로 베끼는 것을 寫經이라고 하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真相, 즉 부처님을 여러 모습으로 변화시켜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을 變相圖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일까? 마음은 부처의 마음인가 보는 사람의 마음인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 사람의 마음인가? 마음을 어떻게 그렸을까? 궁금했다.

입장권을 받아들고 전시실 입구에 서서 어두움에 익숙해 질 때까지 서 있었다. 소리죽여 소곤대는 학생들과 스님 몇 분이 계실 뿐 한산한 분위기였다. 전시물이 얇전히 펼쳐진 유리벽 앞에 섰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아주 섬세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확대경을 가져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 교토에서 가져왔다는 절첩본 법화경 그림 앞에 섰다. 가늘고 굵은 선들의 섬세함과 오묘한 아름다움에 눈을 땔 수 없었다. 특히 「묘법연화경」 제1첩의 神將像과 설법도의 금니 변상도는 칠백여년의 세월을 건너 뚫 듯 생생한 느낌이 들었다. 고려시대 사경전문 승



불공견색신변진언경 국보210호
고려(1275년)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려들의 강한 정신세계가 느껴진다. 『부처 그리고 마음』이란 부제를 단 이유를 알 듯도 하다. 여백 가득한 문양과 테두리 장식의 아름다움으로 보아 고려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오랜 세월동안 소중하게 보관된 듯 하나 전시가 끝나면 일본으로 돌아 갈 것이다.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온다. 마음 속 깊이 담아 잘 간직 하리라.

학생들이 활동지를 기록하던 곳으로 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방광불화엄경 변상도」가 있다. 안내서에는 황룡사 연기법사가 발원하여 만들었다는데, 바람소리에도 부서질 것처럼 얇다. 부서지다 남은 조각들의 모습은 아주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추상화처럼 보였다. 우리나라 사경변상도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수업시간에 배운 기억이 났다. 백지 묵서인데, 백지의 색 또

한 식아서 천이백 여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는 듯 했다. 색이 변하여 붉은 갈색으로 보이는 종이 위에 곧거나 구부러진 금선, 은선들이 희미한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서진 종이 위에 끊어진 선들을 보며 먼 세월 속으로 사라져 버린 그림들을 상상해본다. 전각 지붕위로 보이는 것은 나뭇잎일까, 꽃잎들일까? 계단 옆의 부처계선 설법 중인지 아니면 수행자들과 문답 중인지.

감색 종이 위에 은으로 글씨를 쓰고 금으로 신장을 그린 「불공견색신변진언경」 제13권은 그 조화가 참으로 아름답다. 고려 충렬왕의 발원으로 제작되었다는데 사경 앞부분에 가는 테를 두르고 여백에 문양 없이 신장상만 그려져 있다. 한껏 폼 잡고 으스대는 듯한 몸짓으로 「불공견색신변진언경」 쪽을 돌아보고 서 있는 신장의 모습이 재미있다.

손바닥만한 그림과 손톱보다 작은 글씨들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주위가 고요하다. 둘러보니 혼자뿐이었다.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전시실 앞에 서서 바라본 광장과 부드러운 하늘빛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쑥부쟁이 하늘대는 길을 걸어 전철역으로



대방광불화엄경 국보196호
통일신라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가며 생각했다. 사경변상도는 왜 만들었을까? 교육용이나 선물용이 아니었을까.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한 수행방법은 아니었을까? 작고 아름다운 그림들에 대한 생각이 꼬리를 문다. 하나 가졌으면, 통도사 성파스님께서 紺紙金泥의 재현에 성공하셨다는데…….

눈은 피로하고 머리도 복잡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미적 감각을 확인하고 온몸으로 느낀 하루였다.



묘법연화경 고려(1315년) 日本 金澤 大乘寺 소장

특설강좌 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 년 동안의 박물관특설강좌를 마치며 강의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특설강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보다 생생한 느낌과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였다. 봄을 시샘하는 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일곱 분의 회원이 옷깃을 여미며 바빠 사무실로 들어왔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후 강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 정리내용은 설문에 응한 답변과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특설강좌를 마친 소감을 묻자 “지난 일 년은 매우 보람되었어요. 7번 이상 결석하면 수료할 수 없기에, 스스로가 대견스럽기도 했죠. 우리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 특설강좌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강좌와의 차이를 많이 느꼈고 매우 행복했지요.”라는 이야기에 참석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웠음을 나타냈다.

설문응답자 95%가 강의내용이 유익했으며, 강의 수준과 강사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강의방법에 관해 ‘강의에 따라 영상자료나 시청각 교육을 늘렸으면 좋겠다’(53%)와 ‘현행대로가 좋다’(38%)로 나타났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강의가 재미있었다고 했다. 주제가 세분화되고 강사가 많다보니 내용이 중복되고 커리큘럼만 방만해지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애쓰는 강사의 스트레스가

지 느꼈다는 한 회원의 이야기에 잠시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그 세심한 관찰력과 집중력이 놀라웠다. 그만큼 수업에 대한 태도가 진지했다는 것 아닌가. 세계사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커리큘럼이 크게 변화되기는 힘들겠지만 점진적으로 보완해갈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시사성 있는 강의도 개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특강이나 다른 기관강좌를 통해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강의와 연관되어 실시되는 전시실 교육은 많은 인원으로 인해 효과가 적고 깊이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어 내실 있는 전시실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설강좌회원의 연령층에 있어서 ‘4,50대’가 70%를 넘었고 ‘60대 이상’도 20%로, 대체로 장·노년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제한에 대한 질문에 ‘연령제한을 없애야한다’는 답변이 49%, ‘30세~63세 미만’이 30%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고령화나 사회활동연장에 따른 재사회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령제한은 사회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학력문제는 사회교육에 제한선을 둔다는 반발과 적절한 강의수준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쉽게 해답을 얻기 어려웠다.

수강동기로는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서’(73%), ‘기 수강자의 권유’(10%), ‘여가선용’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의 문화강좌 경험도 79%로 조사되어, 회원

들의 우리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회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회원이 특설강좌에 이어 연구강좌도 수강할 계획이라고 답변해 박물관강좌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었다.

‘답사가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90%)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한 회원이 답사를 통해 제일 먼저 ‘시간 준수가 엄격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어 해설자에 비해 답사자수가 많고 다른 관람객들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불편했다고 했다. “박물관이 쉬는 날을 이용해서 답사를 가면 어떨까요?”라는 의견에, 박물관 휴무일이 전시물 교체, 정리 등으로 제일 바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원하는 답사 지역이 원거리인 경우 숙박 등의 문제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전해 들었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불편사항을 물었다. 이구동성으로 주차장 시설이 넓고 잘 정비되어 있는데 반해 회원들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이 문제는 3월 개강과 함께

회원혜택이 현재 실시되고 있다. 수업 분위기를 위해 “강사는 강의에 앞서 컴퓨터 실행이나 사전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중단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시간이 아깝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강사뿐이 아니죠. 수강생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죠. 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끄지 않을까요? 간혹 울리는 벨소리, 가끔은 통화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라며 수강생들의 자세도 꼬집어 주었다. 자리맡기, 강의실 안에서의 식음행위, 수업 중 사담 등 이런 이기적인 행동 등이 다른 회원의 수업에 방해를 준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할 수는 없겠지만 위의 의견들이 모여서 보다 내실 있는 박물관특설강좌가 되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성심껏 설문에 응답해 주신 특설강좌 회원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김경섭·김경희·김상현·김지원·장명숙·정황희·최경순 회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설강좌에서의 열정과 관심이 연구강좌에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 愛



전시소개

"베트남, 삶과 문화"

김 영 미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아시아관 인도·동남아시아실에서는 『베트남, 삶과 문화』를 주제로 2008년 3월 11일 부터 약 2년간 상설 전시된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민족학박물관, 국립미술관에서 대여한 전시품과 우리 관 소장 공예품 148점이 공개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전시이다. ‘베트남’은 越南의 베트남어 발음으로, 마지막 응우옌(Nguyen, 阮) 왕조(1802~1945)가 세워지면서 청나라의 승인 하에 제정된 국호에서 유래되었다. 그 이전에 불렸던 ‘安南’이란 명칭은 당이 설치했던 안남도호부에서 연유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국가의 초기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나, 끊임없는 투쟁으로 독립과 함께 독자적인 왕조를 세웠다. 중국은 조공관계가 유지되는 800년 동안 여러 번 침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19세기 이후 프랑스의 침략도 성공하지 못했다. 1960년대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참여하였으나 베트남의 승리로 끝나 공산화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듯 외세의 침입에 굴복하지 않은 역사를 지녀 국민들의 자부심 또한 매우 강한 나라이다.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자가 쓰였으나 8,9세기 경에는 한자의 뜻과 음을 차용해 만든 쯤놈(Chu Nom)을 사용하다 18세기 선교사들이 라틴문자로 적기 시작한 것이 현재 베트남어의 효시가 되었다.

전쟁, boat-people 등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 산업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킨(Kinh) 족과 약 50여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문화는 소수 민족공동체의 문화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품



수상인형극

수상인형극은 비엠킨족의 독특한 전통 공연문화로 13세기부터 북쪽 삼각주 지역에서 행해졌다. 농촌의 일상을 잘 보여주며 검은 부스에 숨어 머리춤까지 오는 물속에서 인형을 조종한다.

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베트남 사람들과 공예’, ‘베트남의 고대문화’ 및 ‘베트남의 도자기’ 등 크게 세부분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1. ‘베트남 사람들과 공예’

소수민족과 관련이 있는 의상, 바구니, 악기, 인형, 나전칠기 등의 공예품 전시를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 담겨진 문화를 볼 수 있다. 특히 水上劇 인형과 악기 등에서는 놀이 문화를, 무덤 주변에 세우는 목조인형에서는 장례 문화도 접하게 된다.



죽은 이를 위한 조각상

중앙 고원지대의 자라이나 바나의 공동묘지 울타리에 세워두던 조각상이다. 바나족은 시신을 매장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은 이의 혼을 보내는 의식을 치른다.

2. ‘베트남의 고대문화’

베트남 고대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선문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 모양의 등잔 -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타인호이(淸化) 성성 라익쯔영 출토, 기원전 3~2세기 높이 45cm 동선 문화의 청동유물 중에서 손꼽히는 걸작이다.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청동 북

주로 장례, 기우제 등의 의례 때에 사용되었으며 민족공동체의 긍지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3. ‘베트남의 도자기’

기원전 2세기경에 제작된 토기부터 19세기의 도자기까지 그 시원과 발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사적으로 전시를 하였으며, 이러한 전시는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



꾸라오짬(Cham) 섬 침몰선에서 발견된 베트남 도자기

도자의 대부분은 북부의 쭈따오(하이즈엉)와 탕롱(하노이)에서 15세기에 생산된 제품으로 전성기의 베트남 도자의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페르시아와의 첫 만남

한 수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흑달린 소 모양 토기

이란 북부에서 발견되는 동물모양토기는 아리안 민족의 출현과 관계가 깊다. 소의 특징적인 형태를 세련되게 표현한 토기로 종교의례에 사용되었고 무덤에 부장된 것이다.

여점의 이란문화재와 경주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된 유리잔, 황금보검 등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지역과 교류된 20여점의 우리문화재로 구성된다.

기획전시 I 실에서는 ‘페르시아의 황금’이라는 주제로 대형 금제용기와 각종 보석, 금·은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이 선보인다. 그 외에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한 신분을 증명하는 다채로운 인장들과 아케메네스왕조에서부터 사산왕조까지 만들어진 금·은화가 같이 전시된다. II 실에서는 이란과 페르시아의 역사·문화를 통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유물로는 곡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토기부터 다양한 상형토기, 금속유물로 대표되는 루리스탄청동기

국립중앙박물관은 페르시아 기획특별전을 2008년 4월 22일부터 개최한다. 약 3년간의 준비를 거쳐 열리는 이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소개되지 않은 페르시아와 이란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물들은 이란국립박물관, 페르세폴리스박물관 등 이란의 대표적인 다섯 개 국립박물관의 소장품으로 구성되었다.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5천년부터 사산왕조가 멸망하는 7세기에 이른다. 전시품은 채색토기에서 사산왕조의 금속공예품에 이르는 200



다리우스 1세의 은제 정초비문

페르세폴리스 중심부에 위치한 아파다나(알현실) 기둥아래에서 출토된 명문으로 황금제와 한 쌍으로 발견되었다. 다리우스1세가 아케메네스의 후손이며 광대한 지역의 영토를 다스린다는 내용이다.



황금각배

아케메네스왕조 때 만들어진 각배로 술과 같은 신성한 액체를 담는데 사용하였다. 사자는 강한 힘의 상징이자 왕의 상징이다.

등이 있다. 전시실 중심부에는 페르시아제국을 세운 아케메네스왕조의 유물을, 그 뒤로 파르티아,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유적과 유물을 배치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경주에서 출토된 다양한 페르시아와 서역계통 유물을 진열하여 동서교류의 양상을 볼 수 있다.

페르시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페르세폴리스 유적을 관람객에게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특수 영상물을 한국과학기술원과 함께 제작하였다. 과거 페르시아제국 최전성기의 페르세폴리스 모습과 현재 남겨진 유적을 HD화질의 초대형 스크린으로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관람객을 위해 오디오가이드를 배치하고, 도슨트의 전시설명, 전시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영상물이 준비되었다. 그리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전시품과 연계된 실습·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 특별강연회, 페르시아문화 연속강좌 등 학술프로그램이 국내외 전공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란의 민속공연과 음식페스티벌도 열린다.

페르시아 기획특별전을 통해 그동안 멀게만 느꼈던 한국과 이란 두 나라의 문화교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을 대표해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의 창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은제사냥무늬접시

사산왕조 페르시아 금속공예를 상징하는 은제접시이다. 접시 위에 왕족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장면을 부분 금도금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실크로드를 통하여 신라에 까지 전해졌다.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회와는 특별한 인연이 좀 있지요. 79년인가, 당시 박물관대학 (현. 박물관 특설강좌)에 입학하려고 했었습니다. 커리큘럼을 보니까 넓은 분야를 한몫에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치열한 경쟁에 밀려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교육 기관이어서 대학원생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었지요. 한참 지난 후에 특설강좌 강사로 국립중앙박물관회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진지한 수업 태도에 많이 놀라기도 했지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취임사에서 세계적인 규모에 맞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다. ‘대중화, 국제화, 정보화’를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

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박물관인의 역량강화가 급선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외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남대문 화재 사건도 소통부재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지요. 박물관의 전시나 행사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원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면 더 좋지요.”

2000년부터 고려대 박물관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제10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소통은 언제나 상호배려와 협력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손을 내민 그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으로서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박물관이 민족문화 전당으로 단단히 자리매김을 하는데 우리 회원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박물관은 국가 자부심의 실체이다. 그런 박물관을 향유하는 것,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 河

천신일 회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의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음악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기부회원 유치에도 노력해 왔다. 회원에 대한 예우를 보강하면서 작년 11월, 그동안 이름만 존재했던 천마회원이 처음으로 생겼다. 세종나모여행사 천신일 회장(64)이 보유 지분 주식 22,500주(약 3억 원)를 국립중앙박물관회에 쾌척한 결과이다.

“평소에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꼭 돌려줘야 한다.’는 모 기업인의 말에도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과 전통 문화 발전 그리고 스포츠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서 도움을 주고 싶었지요. 이번 기회에 기부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고 기부행사에서 말했다.

천회장은 일찍부터 일본에 유출됐거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나라 옛 석물을 수집하는 등의 문화사업에 관심이 많았다. 2000년 7월 용인에 세종옛돌박물관을 세웠다.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회에 기부하여 사회환원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천회장은 금년



에도 2만여주를 기부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동참할 때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 진다”고 말하는 천신일 회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기업인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의 귀감이 되고 있다. 🌏 信

박물관 주변 들꽃

박물관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우리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골담초

높이 2m까지 크는 나무이며, 5월에 아래로 늘어진 나비모양의 황적색 꽃이 핀다. 줄기는 무더기로 자라고 가시가 많다.
(전통염료식물원 주변)

골담초

병아리꽃나무

낙엽활엽관목으로 높이 2m 정도이다. 4~5월에 피는 하얀 꽃이 어린 병아리를 연상케 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종각 주변)



병아리꽃나무

앵초

물가나 풀밭의 습지에서 자라는데, 연한 자주색의 꽃이 꽃대 끝에 핀다.
(만남의 집 주변 및 거울못 주변)



앵초

금낭화

여러해살이풀로 5~6월에 담홍색 꽃이 줄기 끝에 주렁주렁 달린다. 유독성 식물이지만 며늘취나물이라 하여 봄에 채취한 어린잎은 삶아서 나물로 먹는다. (종각 및 거울못 주변)



금낭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사회교육·자원봉사·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吳志哲

理 事 | 崔光植·金紅男·朴仙卿·朴亨植·申硯均

安聖基·李健茂·李斗植·李仁洙

田永采·鄭珮勳·池建吉·崔科南

監 事 | 金義柯·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
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
관·청자·백자·수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
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
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
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수정회원
이백만원 이상으로한다.

■천마회원

千 信 一
孫 昌 根

세종옛돌박물관장

■금관회원

俞 相 玉
朴 容 允
팬택&큐리텔
(주)한섬
(주)STX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朴 炳 燁
鄭 在 鳳
姜 德 壽

■은관회원

柳 昌 宗
鄭 明 勳
金 鍾 漢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서울시향 고문
(주)종합전기 대표

■청자회원

趙 炳 舜
金 榮 秀
玄 明 官
愼 昌 宰
金 永 珮

성암고서박물관장
변호사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김 & 장 법률사무소

徐 載 亮
田 永 采
胡 鍾 一
申 硯 均
李 雲 卿
金 英 惠
李 美 淑
鄭 在 昊
李 明 姬
朴 仙 卿
李 起 雄
辛 永 茂
李 仁 洙
辛 炳 讚
朴 載 蓮
李 鈴 子
柳 芳 熙
朴 海 春
金 宗 學
都 炯 泰
申 聖 秀

재) 아릅지기 이사
사) 한길봉사회 이사장
호성홍업회장
재) 아릅지기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용인대학교 부총장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수원대학교 이사장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주)풍산주택 사장
우리는행장
화가
갤러리 현대 대표
고려산업 회장

■백자회원

李 京 姬
洪 錫 肇
李 興 杓
金 惠 蓮
崔 科 南
李 健 茂
韓 載 京
柳 憲 辰
高 錫 銘
李 殷 子
鄭 叔 熹
崔 惠 玉

수필가
변호사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대학강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용인대 교수

코한인터내셔널
(주)크린텍 회장

박물관사람들

책을 만들면서..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08년 봄 | 21호

새봄입니다. 햇살에 등이 따스해지는 계절,

멀리 바다를 건너온 누런 모래 먼지 흙냄새가 봄을 알립니다.

봄은 흙먼지 속에서 시작됩니다.

훈훈한 바람이 정겹게 다가오니

오시는 님이 따스한 봄바람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사람들이」 새로워졌습니다.

표지 그림을 키우고 목차를 안으로 숨겼구요.

‘특집을 기획으로 바꾸면서 시대적 영역을 현대까지 확장했습니다.

지면이 4페이지 늘어나고 표지도 두꺼운 종이를 사용했는데 혹시 눈치 채셨나요?

내용은 풍부해지고 외관은 새롭게 단장하느라 이번호는 조금 늦어졌어요.

많은 관심과 회원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편집팀)

발행일 | 2008년 3월 2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중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 강신애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
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